



KOREA

STORIES



Translated

패션을 미술로 번역할 수 있을까? 더블유가 던진 이 질문을 위해 아티스트 박미나가 기꺼이 통역사로 나섰다. 패션 이미지는 작가의 문법 안에서 흥미롭게 해석되고 새로운 작업으로 탄생했다.

Photographed by Yoo Young Kyu, March, 2014.